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6 년 10 월 19 일 오늘 오전 4 시 50 분,
로마 알바노 라지알레의 모원 공동체에서
이냐시아 마리아 사베리아 데몬티 수녀님께서
92 세(수도생활 66 년)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제 100 차 세계 선교의 날을 맞아 시편 저자의 “민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전하고,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여라”는 말씀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사베리아 수녀님을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베리아 수녀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세월 동안에도 충실함과 관대한 사랑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냐시아 수녀님은 1934 년 5 월 16 일 브루미니에서 태어나, 며칠 후인 1934 년 5 월 23 일 바루미니의 원죄 없으신 성모님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7 년 5 월 1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 공동체로 입회하였고, 1959 년 9 월 2 일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1960 년 9 월 3 일 마리아 사베리아 라는 이름으로 첫서원을 했고, 1965 년 9 월 3 일에 종신서원을 하셨습니다.

종신서원 허가를 청하는 청원서에서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온전히 당신께 봉헌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기에, 저는 이 숭고한 은총에 응답하는 것이 크나큰 소망이며, 종신서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선한 목자 수녀로서의 저의 아름다운 성소가 요구하는 커다란 의무에 충실히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수녀회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베리아 수녀님은 초기 양성기부터 깊은 신앙과 크나큰 관대함,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봉헌의 정신, 기쁨과 사교성을 지닌 분이셨으며, 수녀회와 바오로 가족에 대한 깊은 소속감을 보여 주셨습니다.

수녀님의 사목 직무는 공동체 장상, 위임구 평의원, 청원기 양성 담당자로서 봉사하신 여러 시기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첫서원 이후 수녀님은 다양한 사도직 분야와 공동체에서 봉사하셨습니다. 1960 년에는 카폴리베리(LI), 1965 년에는 몬솔레 디 코나(VE), 1970 년에는 다시

카폴리베리에서 사도직을 수행하셨습니다. 1980년에는 학업을 위해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 머무셨고, 1982년에는 마사 마르타나(PG), 1983년에는 페스카라(PE)로 파견되었으며, 그곳에서 라틴아메리카 선교를 떠날 때까지 생활하셨습니다.

사베리아 수녀님은 1986년 11월 9일 페루로 떠나 선교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1986년에는 산타에서, 1989년부터는 리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칠레로 파견되어 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1996년에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2006년에는 페르켄코에서, 2013년에는 다시 칠레 산티아고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30년 동안 관대하고 풍성한 선교의 삶을 사신 후, 사베리아 수녀님은 이탈리아로 돌아와 사도직에 계속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탈리아 중남부 관구는 기쁜 마음으로 수녀님을 맞이하였고, 수녀님은 2016년 카스텔라마레의 안눈치아텔라 공동체에, 2017년에는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 공동체에 합류하셨습니다.

2018년, 라틴아메리카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쁨을 표현하신 수녀님은 다시 칠레 산티아고로 돌아가 선교사로서 관대하게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이어 가셨습니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로 완전히 귀환하기를 청하시면서, 선교지에서 보낸 35년의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탈리아 알바니아 모잠비크 관구는 수녀님을 기쁘게 맞이하였으며, 수녀님은 모데나(MO)에서 사목 직무를 계속 관대하게 수행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 공동체에 합류하였고, 그곳에서 평온하고 기쁘며 관대한 모습으로 공동체의 소중한 현존이 되어 주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수녀님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었고, 진행된 상태의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수녀님을 찾아오는 이들과 자신을 돌보아 주는 이들에게 깊은 신앙과 평온함,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선물하셨습니다. 사베리아 수녀님을 사랑과 전문성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 수녀님들과 외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은 마지막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에 찬 의탁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며, 이를 삶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수녀님들은 사베리아 수녀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사베리아 수녀님이 페루에 도착하여 이 땅에 우리 수녀회의 첫걸음을 내딛던 40년 전부터 수녀님을 알고 있습니다. 수녀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칠 줄 모르는 깊은 선교 정신과 사목 정신,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큰 사랑, 수녀회와 선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수녀님의 삶은 친교를 이루고 형제애를 증진하며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소명에 대한 깊은 표현이자 증거였습니다. 수녀님은 마음의 문과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수녀님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찾으셨습니다. 멀어진 양들과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언제나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지치지 않고 그들을 동반하고 방문하셨습니다. 마음의 선함과 섬세함, 다정함과 연민은 수녀님의 특징이었으며, 이를 통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삶을 봉헌하셨는지요! 수녀님은 시간도 에너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조차 그러하셨습니다. 양성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수녀님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단 한 사람을 위한 교리교육이라도 하기 위해 길을 나서셨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착한 목자 수녀들을 양성하는데 수녀님께서 기여하신 바는 매우 컸습니다. 특히 삶의 증거와 기도, 봉헌을 통해 그러하셨습니다.

사베리아 수녀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녀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은총을 전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베리아 수녀님, 우리는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 드리며, 착하고 충실한 선한 목자 수녀로서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오신 수녀님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수녀님께서 온 교회를 위해 평화의 은총과 거룩한 성소자들을 주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 년 10 월 19 일, 로마

복자 디모테오 자카르도 기념일